국제유가 급등 가속화 우려된다?

KDI, Katrina 영향 공급차질 … 걸프 원유 생산의 90% 가동중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KDI는 9월8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Dubai)유는 8월 배럴당 56.6달러로 7월보다 4달러 상승했으며,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영향에 따른 원유 공급차질로 급등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 원유 생산의 90%가 중단된 상태 때문으로 미국 정부의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국제유가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고유가가 지속되면 교역조건 악화로 한국경제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짐으로써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KDI는 내수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둔화됐던 수출증가율도 다시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화학저널 2005/09/0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